朝鮮日報

朝夕刊合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觀洙 印刷人 李泳九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許壇漫筆
露國東方政策과中國革命의特質（十六）

上海에서 梁明

簡單히맬나되쓰려든것이 論點가論題인그마치 意外에길어젓다 남은날은다음機會로밈우거니와 以上에말한노든것을綜合한다면 우리는나음과가튼二大結論을엇게될것이다

（一）勞農露國은 누구나다아는바와가티共產主義國家로 그의重要人物은 모도가共產黨員이오 그의唯一한目標는 世界의共產革命이다 쌀아서 그의東方政策도 完全히世界의共產革命을爲하면서일것은 勿論이지만 그들은「帝國主義時代의革命은「世界經濟의地位의立脚地로부터觀察」하여야되고 歐洲에서의『푸로레타리아의勝利』는『殖民地의解放運動과直接同盟이업시는不可能하다』는信念을 가지고잇슴으로 그들의東方策은 共產主義運動이나共產主義만을對象으로하지안코帝國主義를弱하게하는 힘이되는모든運動을援助하고잇다는것

（二）中國의國民革命은赤露及第三國際의援助를밧고잇는(打倒帝國主義)와『打倒軍閥』을그의唯一한 當面의任務로하고잇슬뿐아니라 그의指導者는大部分共產黨員或은社會主義者임에不拘하고 軍閥과帝國主義는實로中國國民共同仇敵으로 그를打倒함이업시 中國의統一과中國民의解放은到底히不可能한現狀이요 또共產黨員의國民黨加入은 그의目的이 共產革命의即刻實現에잇지안코 國民革命의完成에잇슴으로 그를赤化運動으로나共產革命運動으로볼수업다는것이다 그러하면 이와가튼特質을가진中國民革命은 中國의共產革命과엇더한關係에잇스며 世界革命에 엇더한影響을주게될것인가?

여긔에나는 이에對한詳細한것을쓰지못하는것이 遺憾이다 그러나

（一）中國無產階級의目前의仇敵이 自國의資本階級보다外來帝國主義와그의利用物인專制軍閥일뿐아니라 現在의中國國民革命이 赤露의援助와共產主義者의指導에依하여서이요

（二）世界資本主義가 今日外지維持되어왓슴은 全人口의四分之三을占하는 殖民地及半殖民地民衆의 피와땀을稅納으로하여서인것이事實이라면 우리는容易히그의一般을집작할수잇슬것이다

中國의國民××은 世界××××의將來에對하야 두가지重大한意義를가지고잇다 一은中國의××××에對하여서요二는世界××에對하여서다

（一）中國國民黨第二次大會의宣言은 世界現狀을論하야

（一）世界六分之一의土地를占한露西亞帝國이覆滅되엇고 急速히帝國이敗戰한結果로 帝國主義者의排斥을밧게되엿슴으로帝國主義의陣營이縮少된것

（二）帝國主義者間에 利害衝突로因하야起되는暗鬪가더욱擴大되는것

（三）殖民地及半殖民地의工業이急激히發展됨에쌀아勞働階級이發達되어 民族解放運動中의前衛가되는것

（四）戰後帝國主義國家의搾取가더욱甚하여짐에쌀아殖民地奴隸의反抗運動이 더욱激烈하여지는것

（五）勞農露國과土耳其의革命과獨立으로 一切殖民地와半殖民地民衆은 暗示와模範을밧게된것

（六）帝國主義資本國의經濟恐慌으로그의階級鬪爭이더욱激烈하게되는것

을들어서 『帝國主義의 基礎가이미動搖된것은 可히斷定할수잇나니 그崩潰의期는 반드시멀지안홀것이고 世界一切被壓迫民族及民衆의聯合은實로 그의救命傷이될것이라』하엿거니와 全世界人口의 四分一을占하고 世界資本主義의가장擴大하고 가장良好한市場인中國의反帝國主義化는 世界帝國主義者에게對하야 實로決定的威脅이될것이다

『스타린』동무는 『殖民地는帝國主義의背面』인데 『背面根據地의革命化는 非但帝國主義에對하야 그의後方의把守를喪失케할뿐아니다 西方革命의危險에對하야 決定的影響을주는것이라』하엿거니와 나는中國民을對할쌔에恒常 『世界××의前夜』를聯想하게된다

이것으로 爲先펜을던진다

（一九二七、三、一二）

英米佛三國 新協約締結說
軍縮委員會經過不良으로 三國間新方針樹立

（伯林二十二日發）『아이슈·우·암·잇닷하』紙倫敦特派員이絕對로信用할外交官側으로부터得한消息이라고傳하는바에依하면英米佛間에新協定이成立되려는바此는五月中에佛大統領『두메르크』氏가倫敦을訪問할쌔에締結하리라고한다 右는『제네바』國際聯盟軍縮委員會의經過가不良한結果促進된것으로右三國間에新方針이樹立될것을意味하는것이다即

一、海軍制限에對하야佛蘭西는若干讓步함
二、英國은米國에追隨하야中國에對한强硬策을改함
三、英米는佛蘭西의公債를引受하는等인바右新協約은一面『쌜칸』半島에在한伊太利의政策抑制를意味한것이라고解釋되더라

米國은不認

（倫敦廿二日發） 米國側의 消息通은『아이·슈·암·잇닷하』倫敦通信員의報道인英米佛三國新協約說은根據가업다고否認하더라

露中同盟을確保하고 蔣介石을銃殺하라
在獨國民黨員이打電

（伯林二十三日發） 獨逸에在留하는中國國民黨員은漢口에在한同黨執行委員에게電報로賣國奴蔣介石의銃殺을要求하고孫文의遺囑을依然遵法으로서支持하며勞農露西亞와의同盟을確保하야奮鬪할것이라고하엿더라

支拂猶豫令은 樺太에도實施
◇臺灣에만不施 二十三日午後에閣議決定

（東京二十三日午後四時四十分至急電） 朝鮮、關東州、樺太에도支拂猶豫를施行하기로二十三日午後의定例閣議에서決定하엿더라

註、右는本日午前의臨時閣議에서決定한支拂猶豫施行方針에基하야閣議에서決定한것이더라

二十三日閣議에서臺灣의財界事情에對하야聽取한結果

一、臺灣은幾分取付狀態에잇스나其後幾分次靜하고또한島民이勅令을誤解할憂慮가잇슴으로一日限額을五百圓으로하나適當치안타는아서今後調查의後應急處置를採함

猶豫令期間中 手形交換中止

（東京電） 東京手形交換所에서는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丸之內銀行集所會에臨時會를開하고支拂猶豫期間中手形交換을中止할事外의四件을可決하야臨時總會에附議하기로하고또한貯蓄銀行問題는大藏省의意嚮을聽取하기로決定하엿더다

大阪組銀은 東京과同一方針

（大阪電） 大阪組合銀行에서는二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集會所에서緊急委員會議를開하고協議하엿는데意見으로서는될수잇는대로業務를繼續하자는것인바大藏東京의方針에依倣하게되리라고觀測하더라

天津財界 漸次平靜化

（上海廿三日發） 天津來電에依하면支拂猶豫施行休業의報는當地金融界에絕大의衝動을與하엿다그러나此는거우滿洲銀의東鈔으로부터日本金은鮮銀爲替相場을無視하고二觸半이暴落하엿스나今朝一觸半을回復하야平靜하게되는中이다日本人銀行은平常과가티營業中이더라

各爲替銀行去來繼續

（東京電） 支拂猶豫施行中外國爲替는如何히할가의問題에對하야二十三日橫濱正金三井、川崎、第一、第百各爲替銀行은協議의結果平常대로爲替의取引에應하기로되엿더라

支拂猶豫로 外國株式大混亂
東京市債는二弗半急落

（紐育二十二日發） 日本에서支拂猶豫를實行하엿다는報道는當地外國株式取引界를大混亂에陷하게하엿다그런데主要한反動의出現은日本의工業產業의諸株式社債及最近募集한東京市債이니東京市債의最近賣價는八十九弗半이엇는데今日은八十六弗八分의一로下落하엿더라

鮮銀 天津支店取付

（上海廿三日發） 天津의朝鮮銀行支店은二十三日來取付를當하야正金其他의銀行도多少의影響을밧는다는報가잇다當地方銀行은시금臨地 エ는平穩하나萬一取付를當할지라도上海만으로約一千萬圓의現金을가지고잇슴으로危惧될것은업다고云하더라

問題가거듭하는 長淵未墾地事件
不徹底한當局處置를憤慨

黃海道長淵郡大救面金水里의國有未墾地不正貸付事件으로因하야오래동안三角的爭議를繼續한다함은累報한바어니와同事件에關係가잇다는金某다는郡雇員의犧牲外지내이게되고도解決이되지못함으로一般은注目하야오든中最近에至하야는다시地元民의代表金尙鉉氏等이海州道廳에陳情書를提出하는同時에農務課長을訪問하고事情을一一히陳述한結果課長도事實이잘못된것을承認하는同時에도라가잇스면잘되도록하야주마고함으로代表者들은곳도라왓든바去十八日郡廳張琦煥氏가同地에出張하야住民들과被貸付者들을會集하고自己가道廳의訓令을맛아本事件을公平하게解決하기爲하야왓노라고하면서도被貸付者들만爲하야말할뿐아니라『그머들은번적서면陳情을잘하더라』라는말이住民의感情을傷케되야反駁함으로被貸付者의一人인安龍袞와住民들에게만호害毒을주든崔子鉉이란者가官吏를對하야不恭言辭를하는것이不可하다는意味로住民들을叱責함으로住民들은더욱激忿하야彼此間辱說이往來하다가맛침내붓짐질外지생겨서一大殺風景을일으켯다는데一般은當局의今後處置에對하야注目中이라더라（長淵）

平壤洋靴工大會

平壤洋靴職工組合에서는去十七日午後八時平壤里門里勞働聯盟會館內에서臨時大會를開催하얏는데出席會員이七十餘名에達하야盛況을極한中左의決議를行하고閉會하엿다더라（平壤）

◇決議=組合維持方針의件 新會員問題의件 規約修正의件 運動方針에關한件

◇穀雨節에數萬名모혀드는華嚴寺

間島생각을읽고 （所感의一端）（二）

江村生

前述한바와가티내가間島생각을여러가지의意味로의것이다 그런外닭에機會만잇스면間島巡行을하고저하는뜻을가지고잇다 또한가지내게印想을새롭게하는것은最近平壤行車中에서一行六人의間島行家族과相逢하엿는데 몸에는鄕衣가襤褸하고顏色은極度의營養不足으로因하야蒼白色인데다가行具라고는매우는이불뿐이엇다 未知의此家族은忠淸道槐山出生으로祖上의遺業이라고는田畓三石落여잇서그것으로自作農을經營하야裕足하지는못하나 自足은하엿섯다한다 그러다가某日本人의勸誘에걸려商業이라고經營하든바日本人에게다欺되어그土地를殖銀에與執하고어든資金全部를落敗하고束手無策이되어그만한숨기는[illegible]故鄕을떠난後悔할수업서間島를向하야떠나는길이라한다 더구나그一行의食糧이라는것은米餠한봉지와『콩부치』라든가무엇인가를가젓슬뿐이다. 이羊과가티順良한사람들속여먹은日本人도日本人이지만 아모도아는사람이업고山水조차서투른萬里異域을向하고乞食하야가며 그래도모진生의衝動에쫄려가는白衣族을볼쌔에木石鐵漢이아니어든엇지無心하게치웃쳐볼것인가

◇屈辱의길에서헤매는同胞야
쓰리고압흔怨恨을하소연할어라!
해마다쏫피는조선이언만
엇지이다지슬슬하다나?
◇그네의形便도기울뻐잇스련
혓高賤소리에떨지마소서!
長白山뚜렷한雄姿를보면은
朝鮮魂의更新이崇嚴도하여라

東樵李兄은五個星霜을間島의풍안에서키워낫슴을생각하니이가려憩明하거든祖上이나고祖上이뭇처잇서數千年以來에그雨露와恩澤에서옹도다자라난數百萬間島移住同胞가祖國을一朝에身病에게앗기고만생각을할쌔에 果然李兄의間島생각만暫못할것인가 그以上몃百倍몃千倍벌것이다低徊蕭蕭十有五春秋에아죽도아죽도살림사리가바로살히지안흘슬생각할쌔에鐵石肝腸노오히려悲憤에쌀어녹어버릴것이다 하물며남다른생각을부놓켜안고北便을向하야일을圖謀코저하는志士賢人의朝鮮생각이야말도무엇에比하야評할바이랴?

曉起高嘯[illegible]世
始知西勢漸豫東
慮老林泉非志士
名露竹帛是英雄

이가든至嘯을읍조리고잇는朝鮮內地同胞야말노모다無骨漢白痴라고비우서도閒島와南北滿에흐터저잇는同胞에게吝할바를모른다그나그뿐인가歸反背校의가진苦楚를그네에게밧으면서도依然平身하고잇는그것을兄弟가볼쌔에憤念의나뭇에는血淚도不禁할것이다 더구나그便에서는혹는려서 아니自身의榮辱그것만을取하려하고 自身의安逸만을圖謀키爲하야『살이살을먹는』그것을볼쌔에어쉬일곰에쉬가나지안홀것인가?모조리맷어고두주먹을부르쥐고목목들의弟들의身勢도可憐하다면可憐할것이나 이몸은님마다는 朝鮮內地同胞에比하야한氣慨이라고 評하고십다

朝鮮엔봄（春）이왓다 （花）도피엇다그러나오즉바람이거치지를안코잇다데에서白骨을반風舞하며에憧憬들만兒니 이부삭皮肉的對照일가 아서라모도가痰心일것뿐이니맛흔도開島와南北滿에흐터진志人烈士와同胞의健康을빌뿐이다（完）

全北道委員 準備委員會
◇七條項決議

既報=全北靑年道委員會準備會에서는去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全州靑年會舘內에서第一回準備委員會를開하고左記案을決議하엿다더라（全州）

◇決議事項
一、全北靑年聯盟의決議案은本道委員會에서引受하고同時에實行하기로함
二、常務委員選定의件
三、靑年聯盟決議案靑總에建議의件
四、메ー데이紀念에關한件 靑年聯盟에서決議된메ー데이紀念은常務委員에게一任함
五、郡靑年同盟組織의件 全北道內各郡靑年同盟을來六月末日內로組織케하고靑年同盟規約草案을作成하야參考에供하도록하고一切을常務委員에게一任함
六、道內巡廻의件 道內各地方을巡廻하기로하되巡廻員을三隊로分하야一隊二人式으로定하고平野部에一隊山間部에二隊로五月末日外지巡廻를完了케하기로함
◇巡廻員=第一隊金世民 朴蓁華▲第二隊韓晧淙 宋始鏞▲第三隊李明鐸 嚴乙
七、第二回委員會召催의件 來五月卅一日午後一時裡里에서開催하기로함
◇委員=李平細 趙潤雲 林赫根.

龜城少年會 『어린이』紀念
◇準備에紛忙

龜城少年會에서는五月一日午後一時天道敎堂內에서紀念式을擧行한後市內에宣傳『쎄라』를撒布하면서旗行列을하고午後七時半부터는提燈行列을한後八時半부터는다시餘興으로歌劇大會外지開催하리라는데去十九日少年會事務室內에서委員會를開하고諸般準備에着手하야매우奔忙하다더라（龜城）

達成券番의 同情演奏會
有志同情希望

三個團體를爲하야

大邱達成券番에서는萬鏡舘海東團旅人宿組合、飲食店組合、漢藥商組合等의後援으로育英團體인嶺南育英共濟會、勞働共濟會의三團體를爲하야來廿四五兩日間으로萬鏡館에서演奏하야收入된金額은全部前記三團體에寄附하기로한다는바後援團體인萬鏡舘에서는二日間無料로提供한다는데紳士淑女諸氏의만흔同情을바란다하며入場料는特等一圓階上七十錢階下五十錢이라더라（大邱）

慶南主日校大會

五月廿四日부터開催

慶南主日學校大會는來五月廿四五兩日間晉州에서開催한다는데講師는世界主日學校聯合會派送의라왜이嶺과同會總仁果牧師이라하며各地參集者가數百名에達한다는데晉州基督敎勵靑年會에서는同大會準備에奔忙한다더라（晉州）

群山第二公普 期成創立會
進行方針決議

群山府行政區域이擴大되는同時에從來入學難을救濟키爲하야去十日有志十數人이會合하야群山第二公立普通學校를期成코저準備會를組織하엿다함은既報와如하거니와去十九日群山普通學校講堂에서群山第二公立普通學校創立總會를盛大히擧行하엿는바定刻前부터雨天임에도不拘하고數百의有志가雲集하야金瑞集氏의簡明한經過報告가잇슨後臨時執行部를特設하야各般進行方針을決議하고盛況裡에閉會하엿다더라（群山）

安城紹介版 投稿大歡迎
◇本報支局犧牲的努力 安城地方을紹介키爲하야

本報安城支局에서는安城地方의모든事情을遺漏업시世界的으로紹介코저千餘圓의經費로今朝鮮日報安城地方版을發行한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安城支局에서는同地方版의內容을充實히裝飾하기爲하야左記各種의投稿를安城人士에限하야募集한다는데投稿場所는本報安城支局과同竹山分局이라하며入選者諸氏에게는薄謝를進呈하리라더라（安城）

002534

◇人物投稿
一、敎育事業에功獻이만흔者
一、社會事業에功獻이만흔者
一、慈善事業에功獻이만흔者
一、農商工其他事業에成功한者
一、德望品行이一般의景仰을밧는者
一、孝子節婦로一般의稱頌이잇는者
一、距今百年以前의偉人傑士의遺跡傳來
右人物投稿에對하야는當者의住所姓名과所經歷事實에證明될만한材料를充分히記送하실事
◇文藝投稿
一、現下安城事情에對한論文感想文 漫筆 漫畫（附關隨意）
一、新詩（隨意）
一、漢詩（詩題）登飛鳳山俯覽安城市（押韻）川連烟過林
◇兒童作品
一、書 畫 作文（隨意） （住所姓名 校名 學級 年齡等을明記）

地方紹介（12）
書題詩句가득한 勝地絕景
求禮郡 其二

智異의名山을등지고 蟾津의大江이둘너잇는이땅에엇지勝地가업스랴 南의鷲山 東의龍巖、鷲谷東北의華嚴泉隱 及長江一帶가가장著名하나

◇華嚴寺=는智異山麓에在하니邑을距하기十里라 **新羅眞興王**五年 即距今一千三百七十餘年前에 煙起祖師의創建한바된大數年前에特히三十一本山中의一로昇格된大刹이다 十里밧게떠나가는 적은배를굽어볼수잇스며 中天에소슨露嶽을차고도라가는구름도바라볼수잇는 眼界가極히넓은곳이라 春分秋分에南極老人星을볼수잇스며 또이절에잇는覺皇殿은 二層으로된宏壯한建物로 그制度가景福宮안勤政殿과 조곰도틀님업는것이며 自古로傳來하는寶物도적지안타 春三月穀雨節이도라오면 智異山特有의藥水인拒檊水가萬病通治의靈驗을가젓다는지라、遠近來客이雲集하야 數萬에達하는人海가雜踏하기짝이업다

◇泉隱寺=華嚴寺西北五里許에在한名寺로 寺의境內에 **藥水가湧出**하얏슴으로 甘露寺라하엿섯스나 中間의兵火로因하야 殿宇가焦有에歸하자 甘泉이涸渴하엿슴으로 泉隱寺라改稱하엿는데水石이明媚하고 山容이幽寂하며 淸閑하기짝이업서實로塵世를떠나는感이업지안타

金富軾詩
俗客不到處 山形秋更好
登臨意思淸 江色夜猶明
白鳥高飛盡 自憐蝸角上
孤帆獨去輕 半世覓功名

◇鶴湖亭=郡의東南十里許 蟾津江岸鵲頭臺上에 巍然히나라갈듯이서잇스니 十餘年前에一郡의文人韻士가合意하야 建築한바이니 아흐로 **峰巒秀麗한** 五峰山을坐起하고 眼下에大江이長流하야 晴江落照에큰배적은배오고가는것遠浦歸帆을볼수잇스며 每年三春好時節과九秋丹楓의佳辰이면遠近의文人韻士가登臨하야 嘯詠하는곳이다

◇老姑壇=은郡의東北三十里許에在하니（華嚴寺에서約二十里）智異山中腹에 在한지라 『코재』『유섬재』라稱하는 極히險峻한곳이다 그러나勝地를찻기조화하는 人生의일이라 自古로人跡이드치지안하야雜草가욱어지고蒼苔가쏙인곳에細路가繼承히잇고壇上은綏斜地로되어 **奇岩怪石이** 散在하며 奇花瑤草의高山植物이 滿地하야實로別乾坤이라數年前에米國宣敎師들에게探知한바되여 避暑地로定하야 年來道路를開鑿하며 三十餘戶의避暑舍를建築하고 遊樂場庭球場트까지도 三四個所나設置하엿스며 뒤로더욱더욱大擴張을加하야 不遠한將來에 東洋第一의避暑地 樂園勝地를計劃中인바 二三年內에本地帶外지 自動車線路를開通케할豫定인데千仞斷崖는 雲嶽의神秘를極하야 俗界의三伏暑之節에도 오히려袷衣生覺이懇切하리만치 **淸凉한絕景** 實로塵世를떠난 仙境인듯한感이切實한南鮮알프스山이요 湖南金剛의稱이잇는 一大森林公園이 우리求禮에잇다 邑北三十里許에在한水落瀑布는 其高가二百餘尺이나되는 斷崖로부터내리쏘는水簾瀑布인데 花散玉碎하야空中으로부터쏘리는구실비는그壯快하고玄妙한形狀을筆舌로形言키어려우며 其外에宣祖王亂時에 本郡七義士의戰死한石柱關의古蹟이며 鳳城山의櫻花라던지 隔波亭의風景그언의것이 勝景안임이업나니 가는 **곳마다勝地**요 보이는것마다絕景이라翰墨과詩句가여기버려잇다（계속）

金永泰氏의特志

三渉郡渚德面龍化里金永泰氏는去一日부터開學된同里改良私塾에金二百圓을寄贈하야英才敎養에힘쓴다더라（三渉）

龜城農補科 補習校로昇格
修業期間二年

昨年四月부터龜城公立普通學校에農業補習科를特設하야오든바郡當局과一般有志의熱誠으로公立農業補習學校로昇格運動을하든中去六日附로設置認可가되야學生을募集한結果百餘名에達하엿는데去廿日同校大講堂內에서盛大히開校式을擧行한바官公吏其他有志가多數參席하엿스며祝賀宴外지잇섯나는데卒業期限은二個年이라더라（龜城）

梧谷公普位置爭議

全南谷城郡梧谷面面民大會에서發起한公普校는建築費로住民負擔六千圓中四千圓을梧校里에서辦出하고位置는梧校里에定하야敷地整理에近近着手하고來六月一日부터假校舍를定하야學齡兒童을收容할豫定인데梧校里는一隅에잇서通學不便이니位置를變更하자는學民은私設하자하야爭議를惹起한다더라（谷城）

三陟少年庭球大會

去十七日午後한시부터三陟少年會主催로竹西樓前悉直公園코ー트에서全三陟少年個人庭球大會를開催하엿는데觀客은百餘名에達하얏스며選手어린이들의白熱化한決勝戰은더욱觀客의손바닥이압혓다한다優勝은北三軍의金啓燦金芝何兩君에게로돌아갓다더라（三陟）

安東幼稚園 慈母會盛況

慶北安東郡邑內西部洞安東幼稚園에서는去二十一日午後八時부터同園保育室內에서園兒童의慈母會를開催하엿는데園代表權泰錫氏와保母金貴桃、金鳳愛兩孃를비롯하야多數한慈母들이모여서家庭과園이親睦할과兒童敎養에對한注意事項을相談討議한後無事히盛況裡에終了하엿다더라（安東）

巨濟靑聯大會
十一條項決議

慶南巨濟島巨濟靑年聯盟에서는去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二運靑年會舘에서第六回定期大會를玉山氏宣言으로開하고出席點名時執行部選擧會錄朗讀委員報告가잇슨後左記各項을決議하엿다더라（巨濟）

◇決議案
一、役員選擧의件
二、規約改正의件
三、盟友敎養의件
四、新幹會에關한件
五、夏期巡廻의件
六、夏期講座開催의件
七、巨濟運動會社에關한件
八、龍溜團體統制의件
九、巨濟雄辯大會에關한件
十、뎀에이단中樞事件에關한件
十一、金洪正에關한件

大衆無視？ 元山靑年黨
創立大會延期理由

지난十七日下午一時부터府內山祭洞天道敎堂內에서開催된元山靑年黨創立大會가議事를進行中엇던事情으로因하야廿四日로延期하엿다함은既報와如하거니와이제그延期된理由를大略듯건대靑年黨發起宣言文中「大衆을獲得하자」는 文句는大衆을無視하여撰擇함이아니냐고傍聽席에잇는數十靑年이詰問하고同時에此文句를取消하도하고또發起人一同은當席에서謝過까지도하라고責迫함에對하야發起人側에서는此文句를取消하고同時에謝罪를하엿다하며또다시數十靑年으로부터 이集會는大衆을無視하며獨斷한會集이니外解散함이相當하다고發起人側을肉迫함에外지일으게됨으로議事를進行치못하고그가리延期를한것이도하더라

交涉도破裂 元山靑年

黨創立大會가그와가튼理由로延期하엿나함은前項報道와갓거니와元山靑年黨發起人側에서는前項의數十靑年과圓滿한交涉을하자는생각으로지난十九日午後一時元山靑年會館上에서前記數十靑年中六七人과會合하야互相間討議해보앗스나何等의効果를엇지못하고도리어決裂이되고말엇다더라（元山）

芙江靑年任員會

忠北芙江靑年會役員會에서는去二十一日第四回任員會를開하고郭興元氏司會下에夜深도록여러가지討議가잇섯는데決議事項은左와如하다더라（芙江）

◇決議=會員募集의件 事業進行方針의件 制起運動을二十五日부터施行의件 靑年會旗買收의件 樂器買受의件 基本金募集方針의件 役員會는每土曜日로施行의件

未老面學校悲運

三陟未老面私立學校는創設以來五六個星霜에온갓風霜을격거가며數만흔英才를敎養하엿스나本月부터는開學期가지나도開學하지안음으로經濟의逼迫으로因함인지當局者의無責任인所爲로因함인지相當한基本資產이잇슴에도不拘하고悲運에빠진것은當局者의넘우나等閑한것이아닌가하며社會諸位의同情과當局者의猛醒을바란다더라（三陟）

●北靑朴女史의美擧 北靑郡總城面滿項里朴四月女史는貧寒한家庭에서紡織과針工으로貯蓄한金十圓을同面總城普通學校에寄付하엿슴으로遠近人士는贊頌不已한다더라（北靑）

讀者優待券發行

本報大田支局에서

忠南大田本報支局에서는愛讀者諸位의誠意를萬分之一이라도報答하기爲하야大田春日町一丁目北村寫眞舘과特約을締結하고朝鮮日報讀者에게限하야半額으로提供하게되엿는데朝鮮日報讀者優待券을오려가지고支局을訪問하야案內書를가지고가서撮影하이라더라（大田）

馬山衡平社定總

馬山衡平社에서는去二十一日午後十時當地依町東成商會에서第五回定期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朴性和氏司會下에臨時書記의前會會錄朗讀과各部報告가잇슨後任員改選과諸般事項을決議한後同十二時에閉會하엿다더라

◇任員=朴有善 李相潤 李珙浩 朴凡俊 朴性和 朴運守 金斗植 崔尙洙 李君一
◇決議=維持方針의件五週年紀念式擧行의件

全州配組委員會

全州配達人組合에서는去十八日同會舘에서委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全州）

一、本組合員張基文君은忝더나은生活을어더보려고渡東하엿든中不幸히危險勞働으로因하야애처럽게도擽死하엿슴에對하야滿庭의精神을다하야哀弔의뜻을表함과同時그遺骸가當地에到着即時에追悼會를開催하며同時에遺族에게慰問하기로함

茂長勞働役員會

全北茂長勞働會에서는去十七日本會事務室에서役員會를開하고

全北[illegible]氏司會下에來廿八日에定期總會를開催할것과小作料斗量高率에對하야長時間討議한後閉會하엿더라（高陽）

載事水組總代會
經過報告及評議員選擧

黃海道載寧郡載信水利組合에서는豫定과如히去十九日午後二時부터當地農業補習學校內에서組合地主總代會를開하고創立委員長松本雅太郞氏로부터創立經過報告가잇슨後評議員選擧에入하야銓衡委員의一人인東拓沙里院支店中津氏로부터現在同組合區域內地主數로는朝鮮人이日本人의數十倍이나此와反對로土地所有面積은日本이朝鮮보다數十倍나됨으로評議員選擧에도此를參酌하야日本人六人朝鮮人九人으로選定하엿스나는報告를異議업시受理하기로決定하고同四時에無事閉會하엿다는데選擧된朝鮮人評議員氏名은如左하다더라（載寧）

◇評議員=崔讚裕 崔錫浩 崔在裕 黃河淸外五人

利原鹽盆驛設定

咸鏡線十八工區內鹽盆停車場設置運動으로七個里志願住民代表 李承烈李喆裕兩氏가上京하야多日運動한結果鐵道局에서도其區內住民의產業文化의福利를爲하야鹽盆驛設置를確定하엿슴으로當地發展을爲하야一般은慶賀한다더라（利原）

地方人事

▲李尙昇氏（本報茂朱支局顧問）는日本九州觀光次十九日出發
▲李鍾淡氏（本報北靑支局長）은局務打合키爲하야上京中이든바二十四日歸局（北靑）
▲印東哲氏（京城朝鮮勞働總同盟常務）平壤勞働紛糾問題調査次로二十日來壤（平壤）
▲李英氏（朝鮮靑年總同盟常務）同上（平壤）

社告

本報驪州支局을左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支局名稱 驪州支局
一、支局位置 驪州邑內
一、支局員職氏名
支局長 張慶植
（電話驪州六番）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鄭昕冀
朝鮮日報驪州支局 白

本支局南海駐在記者韓熙章、朴包柱兩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記者를任用하엿사오니讀者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姜大遇
朝鮮日報三千浦支局 白

本支局總務張禮楠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集金員 金泰孝
朝鮮日報楊市支局 白

本支局前支局長尹河英氏取扱時에未收日報代及廣告料一切에關한事務를引受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牙山支局 白

第三回全朝鮮蹴球大會

日時 五月五、六、七三日間
場所 平壤公設그라운드
參加團 小學團、中學團、靑年團
參加金 不要
參加申請 平壤府倉里關西體育會로五月一日外지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中外、東亞、朝鮮日報支局

穀雨뒤郊外

꼿이야피건말건 논이나어서갈자!

支拂猶豫令 實施後對策確定

京城組合銀行에서 四月廿二日前預金에만適用

드듸어 지불유예령(支拂猶豫令)이 조선에도실시하게되후이것에대한 대책(對策)을 강구하고저이십삼일오전십시부터경성조합은행(京城組合銀行)주뇌부(主腦部)회의가동일오후다섯시까지은행집회소(銀行集會所)에서열리엇는데 그중요한결의사항은지불유예령실시후에대한업무취급(業務取扱)의세목(細目)을협의하고다시지불유예령의진의(眞意)를예금자 (預金者)와거래관계자(去來關係者)에게 주지(主旨)를철더케하기위하야 별항과가튼세칙장십이만매(十二萬枚)를인쇄하야이십사일에전조선각지뎜파시내예금자급관계자에배부하기로하얏다는데이제그세목장은알에와갓더라

急告

朝鮮의今番支拂猶豫令에依하야每日一人에게五百圓以上의支拂을延期케되엇다債務는昭和二年四月二十二日(陰三日二十一日)以前에成立된金圓債務만임으로四月二十五日(陰三月二十四日)以後에預入하는預金에對하야는從前과如히金額의多寡에不拘하고支拂을하겟슴으로安心하고預金을할것이며尙且財界는政府施設이完全히進行되어安定되어가는中이니此亦安心하라

昭和二年四月廿四日

漢城銀行、朝鮮殖産銀行、第一銀行、安田銀行、朝鮮商業銀行

今年『메-데이』全國的으로許可

內務省에서各府縣에通牒

일본내무성(內務省)에서는목하재계가동요(動搖)되예임으로인심을고란(困亂)식히는것은활동을취하지안을것을조건으로 오월일일의전국적『메-데이』를허가하기로결뎡하고이십삼일전국각부현(全國各府縣)당국에대하야통첩을발하엿더라(동경면보)

昌德宮殿下 佛國寺御發

우텬으로인하야고적관람을다마치지못하시고 창덕궁뎐하께옵서는예뎡과가티 ……더라(보성)

鎭南浦市場問題와 府當局의態度

두보=진남포(鎭南浦)미곡상조합과 어곡상조합의 동맹파시사건에대하야왕방한긔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하더라(진남포)

이번 동맹파시에관하여서는부당국에서아무말이업스나본부의시장정책은 시장수효를만히만들려는터인즉 시장을철폐한다는것은 극히어려울것이오 장의회수를 주리는것도 상당한조건이잇서야될터이다 그리고진남포의시장문데는 중산계급이상의 상민들이그러는것인즉 세민구제책으로보면 시장이필요하다 그러나장래는시장이 자연불필요할때가올터이나 그러하다고 리론으로만 할수업는것이고 현실에비추어할것인즉 충분히연구한후가아니면 아니될것이고 영세로말하면 부유나국유디가아니면 부가맛는다하여도 사용료만바더야되리라고하더라

元山富豪子 鐵道自殺企圖

원인은가뎡불평인뜻

원산부상리이동 (元山府上里二 ……

寶城에橫領犯

피해자는수색원데출

전남보성군보성면옥암리 (寶城郡寶城面玉岩里) 리용준 (李容俊)(三三)은 보성금융조합가는돈 이백오십원을 지난십구일에 동리문정옥(文成玉)이맛허가지고 가려할때 그사실을참관하든동리 리창래(李昌來)(二八)는즉시문정옥을쪼차가서 리용준이가 자긔에게맛겻다고 미듬만한말을함으로 문정옥은의심업시 현금이백오십원과 고묘남(高妙男)명의뎌금통장을주엇는데 리창래는 그길로 종적을감추어버렷슴으로 이사실을듯고 그이튼날보성경찰서에 수색원을 뎨출하엿더라(보성)

大阪在留朝鮮人 二割以上失職

재류동포동계는륙만명

◇暗澹한生活狀態

일본대판부하(大阪府下)에거주하는 조선동포는 륙만여명이나되는데 그이할(二割)은 실직자(失職者)이고 취직자(就職者)는토공(土工)으로 하로하로 버는사람인데 일수입은 최고삼원이며 최저가구십전인바 최저자는 도뎌히 만족한생활을하지못하며 매개무직자로 하숙(下宿)에두류하는사람은 그들중에서 …… 아니라는소리를듯는데멀 아서조선사람권문의하숙옥은부하에만 구백오십사호에 달하야 하숙료금은 최고가삼십오원 최커가팔원이며 한사람에 다다미일조반의방을 차지한 세음인바 그하숙에거주하는조선사람은넘만인중에 녀자가 삼백삼십인인데 이리하야서는 위생상또는풍긔상 등한히하지못할사태가 빈발하는것도 당연하다하야 부경찰부(府警察部)에서는 여러가지로고려하는중이라더라(대판)

지난 십팔일오후 여덟시반에자동차(自働車)로불국사(佛國寺)에도착하시와 어데류(御滯留)하신후 십구일아츰 여덟시십오분에 미리준비하여 두엇든교자를탑시고석굴암(石窟庵)을어람하신후오전열한시오십분에불국사에 도착하시와 잠간휴게하신후 동일오후한시반에 경주읍(慶州邑)으로 어출발하시고져 …… (古蹟)을어람하시고 네시반에 하차(下車)하시와 고적을다 시어 관람 하시라다가 아츰부터오는 곳우(暴風雨)가 그치지안허 어출발하시라던 일정을변경하야 이십일오후네시에 불국사를 떠나시어대구(大邱)로 향하신바경계가엄중하엿더라(불국사)

正服입은巡査隊 有夫女弄絡

말리는주인을따려중상

言語道斷의警察暴行

신흥군원평면원평시흥(興)郡元平面元平市 최길혁(崔吉赫)의집에는동면순사주재소수석기던삼장(同面巡査駐在所首席崎田三藏)이하최배림(崔培林)박규하(朴奎夏)삼산순사(森山巡査)네명이 술을먹기위하야 갓든바전긔네명의 순사는 정복을입은채그집손(客)으로잇든 서하룡(徐夏龍)의안해 리씨(李氏)(二七)에게금수가튼 행동을하고저 전긔일인 수사가쉰은 리씨의허리를쥐어안고키쓰를한바 이를보다못한 주인 최길혁이 나와서 이것을 말리매 (大驚失色)하야 악행을하고 의사가 티다운 저사가 네사람이 배매대경실색(大驚失色)하야 어쩔줄을모르고 도망갈길을 찻든중주인최길혁(崔吉赫)은그들의무례한 행동을책한즉 그들중에 어주인최씨를 욕하며 합력(合力)하야주인최길혁을 무수란타하야뜰이 붓도록 짓치고 파어자고 구박게상처를 만히내고도 오히려부족하야 다시 주재소 류치장 (駐在所留置場)에 두어노코 집에서 보내는 사식(私食)까지도 밧지아니하고 무상안고초를 주다가 이튼날에놀려보내엇다는데 이급보를 들은 전긔최길혁의동생 최길호(崔吉鎬)는 신흥경찰서 (新興警察署)에고발을 하엿슴으로 신흥경찰서로부터 서장이하 남궁순사(署長以下南宮巡査)는 현장에와서 사실을 됴사한바 최

男便잇는親달 돈밧고팔아

영덕군강구(盈德郡江口)삼배사십오번디고광길(高光吉)의장모인조성조(趙聖祚)는 자긔의 친딸방면 어느순사에게 이백원에딸라고예아든바 뭄도마옵이 동뎌서 가리살든자긔남편을뗘나 살림이며 음식영업까지 하지안코 가려함으로 전긔고광길과 일반은조성조의비행을분개한다 더라(영덕)

소하여 그버난이충활은 률은공직자중에서도 이에 분개하여장자문데를 일으키려한다는데 그길은 죄중우용 (左右右用)되최신도로이며 일반이 그외가려비난하고 조소한은 그길에 해는현재음산면정지판청정(朴贊政)씨의실케리 박찬영(朴贊英)씨의집이잇슴으로 그집을 헐리지안케하려함이나아닌가하야 이더러라(음산)

錦山公普校室에 喜活劇의一幕

교원배척동맹휴학이원인

지난이십일일 오전 상학시간에 전북금산읍내(全北錦山邑內)공립보통학교 사학년 교실에서는 림시의 최합국을연출하여 보는사람들과 일반 놋는이들로 하여금 허리를펴지못하게한일이 잇섯다는데 그자세한말을 듯건데 평소에 생도들간에 몹친절하다는 평판이자못놉핫든바 오래동안참어오든 사학년생도 일동은 지난이십일에 일제히동교치 안키로결의하는동시에 만일 누구던지 등교하는자는 또한 배척하자하엿든바 그중에 읍내상옥리 한창석(韓昌錫)씨의 손자인 어린생도가 집에가서 그러한내용을말하고 이십일에혼자 동교하엿섯는데 전긔한씨는 전반생도들이

어린손자를 위협할가 념려하여 그이튼날인 이십일일오전 일곱시반생도들이학교에갓는바 마츰 전반생도들이착석하여 수업하려든때이엇섯는데 한씨는독각에서 두루마기를 버서붓치면서 어떤놈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모든생도들이 마주바라보고 잇는참라에 반장이그이를 벼려죽일터이냐고 고함을부르매 전반생도들이 일케히일어서서 선생에게 레를하려든차에 한편에서는 계속하여야 단을안게하엿든바 전긔한씨는 묘되생도들이 자긔에게 듣이뎜비려고 일어서는것을 선생이케지시킴을도 오해하고더욱 붐을내어 주먹으로책상을치면서 소리를지르는것을 선생의권고로 돌아갓다 더라(금산)

己未運動以後 海外亡命九年

세계각국을돌고로방문 ◇歸國한高一淸氏

기미운동이래로오래동안 해외로 망명의길을 것든 고일청(高一淸)(四三)씨는 상해(上海)、불국(佛國)、독일(獨逸)、미국(米國)등 거의세계렬강국을편주하고구년만에 정든고향에 돌아왓다 씨는 평북 의주(義州)사람으로긔미년에 상해가정부에서 재무국장의 요직에잇다가 일년후에불란서에도착하야 파리(巴里)에서 삼개월데류하고 다시독일에서 이년동안 어학과일년간 백림대학에서 법학을전공하엿고 미국으로건너가 뉴욕을 중심으로 동양물산소개에 노력하다가이달초생에 귀국한바 전긔각국에잇는 조선동포의 최근소식에대하야 씨의 전하는바를듯건대 씨가 불국에 도착할때는구라파전쟁이 마티고 한창세계

개조국 (世界改造國)이 『벨사―가뎌우만능며 또의리와 신념이

유롭면에서열린뒤이엇는데 이불란서에는 학생이 약이십명이오 구라파전쟁으로지쌀빈 황무디를 개텩하느라고 루서아로부터 조선동포가 약칠십명이이주되엇섯고 독일에는 한우가오십사명이잇섯다 그리고 미국에는 조선내디에서도 잘아는바이지만 며개이곳 동포는겁소하고 또근면하야 그들의활동은렬국사람들의칭송을 밧는이

朝鮮物品製作 米市場에紹介

매우두텁다 고말하더라

씨는말하되 알흐로 계획할사업에 대하야황금의미국시장에 각국물품중에는더욱완구(玩具)가만흐나 우리조선물품이라고는그림사도업습니다 이것을위시하야미국에 더합할 그대식의 물품을제작하야 그곳에소개하려합니다 그일을하기위하야는 도뎌히 혼로될것이아니니까 유지케씨와 악수하려고합니다 하더라

金海普休解決

학생전부등교

김해공립보통학교(金海公立普通學校)에 오학년 동맹휴학에대하야는 그후의 경과를 들은바에 의하면 학교당국에서 각방면으로 로력한결과 학생측의요구를 잘용하기로되어 지난십칠일부터 일케 동교하엿다 더라(김해)

新築道路 非難만흔

일반은다욕의 처사 를조소

전북금산읍내(錦山邑內)에는얼마전부터시구개뎡데이회의도로신축공사(道路新築工事)에착수하게되어 다수한인가를헐어내이며 못처럼공사를 진행수입에불

非難만흔

들이상(?) …… 산가리병권(李秉均)씨의 동재아들원호(源鎬)(二二)는 지난이십일일경성행막렬차가부내명석동(銘石洞)의 데이『시쿠나두』의 사이를 진행중선로로뛰어들어 자살을 계획하엿스나 다행히죽지는안코 왼편팔목만 다치어서 신음하는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곳 구세병원에 메에다가 치료를 하는중이라는데 그리유를들어보즉 가뎡에불평을품고 그와가티 자살을 하려든것이라하며생명에는별단 계가업슬듯하다 더라(원산)

善山救世軍營의 士官排斥運動

인종뎍차별을철폐코자

작년십일월에 만국 구세군본영(萬國救世軍本營)에서 『뎨드대부스』의쇄신계획을 발표하엿슴으로 조선구세군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들리어 그중 한가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야 일본의 『구세군』에서는 인종뎍차별문데가 원인이 되어 조선인사관급 병사들의 중차별에 대하야 신임사관을 배척한다는 소리를 조선구세군당국에 제출하엿스나 그들의 요구를들어주지아니하엿슴으로 더욱히 현정책(現政策)에반대하며 사관을 배척하는 동시에 자치운동(自治運動)을하리라하야 문데는 점점확대(擴大)되어 가는바금번 선산구세군분규문데에 대하야 긔자는 책임잇는 구세군정교(正校)장씨를방문한즉 씨는말하기를

『금번 분규가일어난것은작년십일월부터 일어낫스나 그때는여러가지사정으로표면운동은못하엿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신입사관이 올릴까하로하야 분개함을참지못하야 우리구세군 오십여명은 단결하야 인종뎍차별문데를철폐하지아니하면 단연히반대하고자 자치운동(自治運動)을하겟습니다』 라고 단단한결심을하더라(귀미)

전긔와가티선산구세군영(善山救世軍營) 장권(張權)(麗)…… 非善山郡長川) 구세군영 에서도 바어니와 경북선산군 장천 (麗…) 가일어낫다 한다 그당시 루보한 다 마상에게 데출하야일며분규 …… 니하엿스나 여러가지 (表面的) 현구세군정책에 반대는 맹렬하야 사정으로 인하야 표면뎍 (表面) …… 크게 분개하엿스나 여러가지

小作權強奪一手

巡査란威力으로

황주오순사의가지가지악행 ◇……住民非難이漲天

황주군 구성면주재소(黃州郡九聖面駐在所)에 근무하는순사오중옥(吳鍾玉)은 수년전에 그곳으로 뎐임하야왓다는바 평소에 민을 학대함이 적지안흔바그곳뎡디로말하면 민간소유는 십분되지못한 버릇과 수단으로서인 일에지나지못하고 그외에는 전부가동양텩식회사(東拓會社)나 일인의 경영인흥업회사(興業會社)의소유디로서 구성면주민일천사백칠십여호에칠천사백여인구가 래반이소작인인바 소작인사이에 피차소작권을 매매하는일이잇서오는터인데 전긔오순사는 자긔가순사라는 너러운리를 하에서 순박한 촌민을위협하다십히하여 자긔가 바른의돈도내지안코 강제로토디를뺏아서 자긔가 농사를지엇다는데 반론의 돈도밧지못하고 토디를 빼앗긴 사람은 구성면석산리(九聖面石山里)에사는 한석순(韓錫淳)인데 바 자긔가부러든 논(畓)일천이백여평을 빼앗기고 네식구의살길이 망연한중에 한석순은드듸어 그로말미암아속시 병들어신음하든중에 마츰내 죽어버리고말엇스며 딸셋엣 감귀(甘龜)를십아순토디에는

엇다가 동리구장(區長)과 협력하야 일반주민에게 또한강제로맥지가지고조합이나수수를바다서 사복을채웟스며 또한구성면석산리 조국현(九聖面石山里趙國鉉)이가 서중디방으로이거하게되어 동양텩식회사 소작권을구성면석산리강영순 (石山里姜英淳)이라는사람이 일천팔백여평을 칠십오원에 매수하엿든바 맛츰동양텩식회사(東洋拓殖會社)에서 사원이출장함을리용하야 무엇이엇더라고하한참 수근거리더니 역시강영순이가 산토디까지 빼앗어 룰일간(起耕)을 곱모양인데당디주민들과 부근일대에서는 순사오중옥을 타매하는동시에 밧아경찰당국에대한 비난성이 충텬하다더라(황주)

大邱各銀休業

대구 각은행(大邱各銀行)에서도지난 이십삼일까지 림시휴업(臨時休業)하기로결의하엿다더라(대구)

한다더라(?) ……

月南先生社會葬儀實寫上映

場所 鐘路中央靑年會舘、朝鮮劇場에서

時日 二十五、六、七의三日間午後七時半

主催 鷄林映畵協會 中央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본사를견학한고등상업학교학생

평양디방법원에서 예심에 부티엇던바 얼마전에 종결되엇슴으로 공판에부티엇다 더라(안주)

치하고 엄중히취됴한결과 전후좌상을자백하엿슴으로 ……

巡查運轉手 大格鬪

차안에서금연을시키엇다고

황해도 금천경찰서 (金川警察署)에근무하는 순사황모(黃某)는지난이십일에 자긔고향인 장연군 룡연면신오리(長淵郡龍淵面新梧里)를 갓다가자긔 숙부황희준(黃熙俊)과함께자동차를타고 신천(信川)으로 오는도중에서 전긔황희준이가 차안에서담배를피우는것을 운뎐수(運轉手)뎡인엽(鄭仁燁)이가 차안에서 담배를먹는것은 위험하니그만두라고한다고 전긔순사 황모가 대로하야 차안에서도 부질업슨 욕설을하다가 신천역(信川驛)에 나리어서는 닷자곳자로운뎐수를무수히구타함으로 로운뎐수는 참다못하야 반항한바 더욱말성이되어 가지고운뎐수의 편을도읍는군중이 분개하야 ……

늙은男便이실혀 絞殺投井한毒婦

젊은간부와가티살고저 前後事實을必竟自白

평남순천군신창면삼중리 (平南順川郡新倉面三中里) 에잇는김성녀(金姓女)(三二)는지금으로부터약십여년전에 김윤범(金允範)

이란사람의 후실로출가하야 지금까지가티 살아오면서 항상그의남편이 나히만흔것을 미워하야 던중 작년봄부터는 그근처에잇는엇던자와 불의의정을 통하게되엇슴으로그때부터는그의남편을 더욱미워하야 내외싸움으로집안에 풍파가 개이지안핫는데엇던날저녁에 전긔 남편김윤범이가 술이취하야 안방알에목에누어자는것을 머리털로맨바스줄로 그의목을 힘것졸다매고자귀로는 부어에서그것을잡아다리엇슴으로 그의남편은 약오분동안고민하다가 무참히절명되엇는데 이악독한 김성녀는 죄악이탄로될가하야 옷방에서자든 그의딸을 깨워가지고 그나하라는대로 순종하여야지 그러치안코 이런말을 입밧게루설하엿다가는 가티죽이고 자긔도죽겟다고 위협하엿슴으로 그의딸도 넘우악착한변을당하고 겁이나서 치를떨며잇는데 동리사람들이 성녀는남편의죽은시톄를 그근처에잇는 우물에다집어넣고 시톄를발견하고 취음에는자살한줄로만 알엇다가 그리면이범원안주지텽검사가 평양디수상난것과 일반의떠드는 이야기를듯고 곳현장에가서 시톄를 해부한후 전긔독부를 경찰에으

臺南에도 同情罷業

공포에싸힌당국

대남(臺南)에서도이십이일에동시내긔계공업회(機械工業會)의 긔긔공회원(機器工會員)팔백명은 걸속하야 동정파업의 선언을 하엿슴으로 당국은 사태용이치안흠을늣기고 극력진무에 노력중이라더라(대북)

◇身病悲觀自殺 경북영덕군영덕면남산동 (慶北盈德郡盈德面南山洞)신해좌(申海佐)는 병으로 신음함이벌써 십년이상이나되어서 하로라도 편안한생활을 도모하고 또는가난한관계로 상당한치료도못하고 오히려 집안사람의 걱정만끼치는 비관하야지난십팔일오후다섯시경에뒷동리압송보(中松峰)에서 저서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피우인들이발견하고 즉시건졋는바 그이튼날십구일에 드되어 절명되엇다 더라(영덕)

新興加平 排水問題

인정업는텰도당국 ◇住民은流離

신흥군 가평장배수문데 (新興郡加平排水問題)에 대하야는 이미본보에 루차보도한엿거니와 텰도당국(鐵道當局)에서 여러차 아니함으로 로디를빼앗기고 주민의 요구를조곰도 들어주지 시민은 할수업시 남부여대하고 떠나지아니하면 장차 진여를 살 마에 양식업는 그 자세한 내용을들으면 관계로 비관 조흔생 디형이 나즌관계로 비만 조금오 면 사방으로 물이모여들어 바다 러로화하야 모다침수가 된다는 때 물이배수될곳이 업슴으로 거장(巨山里)이 가루 막혀잇 세지지 못함으로 풍상시민 피탄원이 잇섯슴에도 불구하 고 금번에 정거장을 매장확장하 배수구가업시 됨으로 회수업서 풍상시민은 모다 써나지 아니면 안될형편이라하야 당국에 대한일반의 비난이 불꼿갓다 더라(함흥)

映畵小說 【六十八】

李慶孫 作

어엽분 꼿봉오리안에 비밀을 열어보게된 요사이의 해人밥는 이미 철모르는아이들은 아니다 시큼둥한 머슴놈의 딸목파가 티억세이고도 농졍마진벗치 이 꼿삼천동을 내려놓는다 오원에 세들은 단간방 봇두막우에도장 안만한 유뎅이를 내려놋는다 수자는 지금그붓두막우헤 걸 터안저서 졸고잇는 고양이와가 티뎜잠도 아니한다 이것은일 이업는 녀자들의 형상이다 자긔네들은 그뎌게 이곳으로 옴기엇다 한달전부터 운동하든 진국이의 취직터가 긔호떠나든 이튼날오전에 소원하든대로 결뎡이되엇다 그직업은 서대문 근처에 새로생긴 『라듸오신문사』의 연예부긔자이니 사회니 무어니 떠들든 진국이의 하반생은 가엽시도 기생파랑며집 출입으로 변하야버렷다 그리하야 월말이면 어떠온다는 돈이 십원짜리뎌장이다 몰론 그것은 일본인의 경영하는곳이다 어느 즘생의피를바든지도 알수업는 장사치사장압헤서하이 !소리를연방해가며 머리숙이는진국이를 상상할때에 안해된 수자의 가져야할진국이에대한 숭배는 먼一산에거처이는 안개와가치사라진다 그리하는 모든것이 자긔를사랑하는 연고이다 하고 그가티이면서도 사랑하야지지안흠이 해석할줄을몰으는배아닌 자긔야엇지하라 몰지각한 기름장사나 떡장사의 딸이아닌 수자로써 단지넷생각이그립다고『우리남편은 진국이니라』하고 뛰어온것이 잘못이다 진국이의 리상대로 커더러운단간방도 두달이나 석달후이면은 세간도 째웃이정돈될것이며 륙칠원짜리의 라듸오도 노하질것이다 그러나 그것이무엇이냐 이

는 사나이와엇지엇지 되어가지고 련락선신호를행하엿다든 동무이다 일본말로 갈기엇다 『잘잇니? 안군이어대서 여나왓드라 참으로 너뭐 의반생은 람정소설이구나 꽃 과나뷔와가튼 너이들의 스윗트홈을 이곳에서 축복하마나는매일 십심해죽겟다 뭐뭐병 치료소가 이근처에잇다니 그안에 뛰여들어가서 그들을위하야일하다가 죽엇스면 시원할듯이 갑갑하구나 요사이는 또야학선생으로 나스시엇단다 십심하니엇지할수가 업드란말이다 지번날 동경의생활이그리워! 너의맛(덧)의 사랑하느니의 건강을―!』 그때나 지금이나 남청뎌인동무의형상을 그리어보느라고 오들로는처음인미소(微笑)를어렷다 『어―어!』 소리나는편을 바라보니 진국이가 들어온다 『엇더케벌서 오세요?』 『수자씨가 보고십허서』 수자는속으로 고맙기는 합니다 하엿다 『어듸서온 편지요?』 수자는 알롱도오는 진국이에게 엽서를 내주엇다 한손으로엽서를바드면서 한팔로는 자긔를세어안어 키쓰한다 남편人별되는 이의강케이라 재미는 업스면서 도 응하여주엇다 진국이의스프링코―트 안에서는 썩내가난다 『이압간동에 긔시어들곳이잇서서― 그래들렷서』 진국이는 엽서를 들여다보기전에 그가티설명한다 『뎜심 아니자서도 조와요?』 『아니………』하면서 읽고잇든 진국이는 『지금도 맑팔낭이도군』하여 버린다 그리고엽서를 도로준다 『서울은무동병 수용소업지요

? 』 『―왜?』 『아니 글세요―』 『―엇지 아마』 『―동물은 잇다지요―』 무심중 말하여나가다가 사실자긔는 그러한데가서 무엇인지하여보고십다 『동물이야 만흔동무―남편이란 밧삽산미혜도 아사엇지―』 수자는『그러면가서 일좀하엿스면요』하라다가 의동모 아니요 란식도어넘어요 나오는 듯하여서 그만두엇다 나 혼자 위선래일이라도 가보지하고속으로 그가티 결뎡하엿다 『―남산 미레애요?』